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bject Guide Development for Modern Korean Literature

홍 현 진(Hyun-Jin Hong)*

강 미 희(Mi-Hee Kang)**

정 대 근(Dae-Keun Jeong)***

〈목 차〉

I. 서론	III.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II. 한국근대문학의 주제가이드 분석	1.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과정
1. 한국근대문학의 형성조건 검토	2.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내용
2. 문학분야 주제가이드의 사례분석	IV. 결론

초 록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를 개발하였다. 이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하에 존재하는 한국근대문학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근대문학 및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용자 인식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으며, 실제 데이터 구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근대문학 저자 117명에 대한 인물정보 및 작품 23,731건에 대한 서지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둘째, 1894년부터 1945년까지 해당 저자에 의해 생산된 원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다른 저자에 의해 생산된 파생자료를 범위로 하였다. 셋째, 저자별, 장르별, 시기별 배열체계를 통해 관련정보의 군집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관련 학계조차 당시의 작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한국근대문학에 대해 체계화와 구조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키워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원자료, 파생자료

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subject guides for modern Korean literature materials that National Library of Korea owns. These were developed through processes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research on user's awareness, and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subject guides in order to reflect characteristics unique to modern Korean literature which existed under special historical conditions. The results of acquiring actual data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cquired bibliographic data on 23,731 cases of works and information about figures regarding 117 author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Second, this study covered raw data generat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s from 1894 to 1945 and the derived data generated by other authors until now on the basis of that. Third, an attempt was made to cluster the relevant information through arrangement system by author, genre and time period. The above-mentioned study results are regarded to be significant because an attempt is made to systematize and structure modern Korean literature existing in a complicated condition to such an extent that it was not possible for even the relevant academic world to find exact statistical data on author at that time.

Keywords: Modern Korean literature, Subject guide, Modern Korean literature subject guide, Raw data, Derived data

* 이 논문은 2014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학분야 주제가이드 개발 및 구축: 근대문학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jhong@chonnam.ac.kr)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mhkang08@hanmail.net) (교신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basicwindy@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6년 8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8월 30일 •게재확정: 2016년 9월 2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315-341,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9.315]

I. 서론

도서관은 인간에게 앎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방법으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앎에 대한 모든 요구에 최대한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즉 한국근대문학과 같이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그러한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좋은 상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상적인 기대 수준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그러한 당위적인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도서관은 많지 않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부터 전문가적 수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서비스 도구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즉 모든 문학 작품은 특정한 시대적 국면과의 연관 속에서 특정한 경향과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과 일제강점기라는 외적 조건은 작중인물의 행위, 의식, 그리고 묘사된 현실뿐만 아니라 작가의 행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조동일 2014, 195)는 한국근대문학의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그와 관련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의 키워드 검색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녹아있는 의미를 반영할 수 없다.

물론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개별 작품 하나 하나에 대한 지적 탐구, 고대가요에서 현대 대중문학에 이르는 과정, 문학사적 의미, 당시의 시간, 공간, 사건, 작가에 이르는 총체적 앎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도서관은 근대문학자료를 수집, 탐구, 보관, 관리, 보급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역부족이며, 또한 이를 비판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10)는 비판과 한국근대문학 자료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 산개해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오창은 2013, 332)는 등의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다행히도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문학정보센터 개관 및 근대문학자료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도서관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도서관을 통해 1910년대의 전국에 산재한 근대문학 작품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이경현 2013, 82)는 등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배경을 통해 볼 때 도서관은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 이용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서관의 실천적 방법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를 개발하였다. 문학은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점과 한국근대문학의 시대상은 매우 독특한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가이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도서관의 <Literature Research Guide>와 영국국립도서관의 <British Library Discovering Literature>도 시대별, 사조별, 지역별 등의 구조화를 통해 학습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근대문학은 관련 학계의 권위 있는 자료를 통해서도 당시 활동한 전체 작가, 주요 잡지 등의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전국에 산재한 한국근대문학을 대상으로 주제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시범적 단계의 주제가이드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편의성을 재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II. 한국근대문학과 주제가이드 분석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주요 키워드는 한국근대문학과 주제가이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핵심 주제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과정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실제 구축과정을 다룬 것으로, 한국근대문학과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동일 연구자의 선행연구(홍현진 외 2015)로 대체하고자 한다. 다만 실제 데이터 구축작업과 관련하여 어떤 대상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규정의 선행조건인 한국근대문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한국근대문학에 대해서는 관련학계에서도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근대문학의 형성조건을 고찰하고 그중 시기에 주목하여 한국근대문학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한다.

1. 한국근대문학의 형성조건 검토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정은 문학, 민족문학, 근대성 등과 직결된 복잡한 것으로(김명인 2005, 175-177), 내용과 형식에서 서구적 형태를 갖춘 문학은 모두 신문학으로 간주한 외재적 관점(임화, 백철, 조연현 등)과 문학의 주체인 민족을 중심에 두고 근대문학을 규정한 내재적 관점(김윤식, 김현, 조동일 등) 등으로 논의되어 왔다(이혜우 2009, 45-60).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근대문학은 서구문학을 준거로, 일본제국 및 세계문학의 적극적 수용에서 비롯된 외재적 개념의 문학으로 볼 수 있다(이경현 2013, 112).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3호)

이 연구에서 한국근대문학의 개념을 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제가이드 구축작업에서의 실익도 크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근대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의 문자로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표현한 문학이다”라는 일반적 정의를 수용하고자 한다. 즉 한국문학의 창작 주체는 한국인이며, 표현 수단은 한국어, 표현 내용은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이라는 개념에 기반하여 이러한 정의를 충족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가이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곧 한국 문자로 작성한 문학을 한국근대문학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글이 공식적인 표기체계로 선포된 1894년부터 생산된 작품을 한국근대문학의 범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정한 준거에도 불구하고 이차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한글이 공식적인 표기체계로 선포된 1894년 이후에도 한자와 일본어를 혼용한 상태로 작품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개개의 작품이 한글로 작성되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당시기의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언어의 다양성이 존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당시 『매일신보』에도 한문, 한글, 한자와 한글 혼용문 등이 혼재된 채 글이 실리고 있었다(이경현 2013, 59). 따라서 한국근대문학상의 표현 언어에 있어 한글사용 여부는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논외로 미루고, 단지 객관적인 조건으로서의 1894년을 근대문학의 출발 시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1894년 기점과 달리 18C 영·정조시대 기점에 대한 주장이 있는 만큼 이 글의 논지를 흐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히 살피고자 한다.

먼저 1894년 기점에 대한 논의로는 조연현(1985, 27-28)의 주장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문학사를 정치 사회적 변천과 문학의 변천이 함께 변모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갑오개혁, 한일합방, 3·1운동, 만주사변, 8·15 해방 등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함께 문학도 창가와 신소설, 신체시와 초기 이광수 소설, 문예사조 혼류시대, 순수문학 주류시대, 현대문학시대로 변모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한국근대문학은 1894년 갑오개혁부터 1945년 해방기까지 생산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894년은 한국근대문학의 기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조연현의 한국근대문학사 구분

①	제1기 1900년대 신문학 태동기	갑오개혁~한일합방(창가와 신소설시대)
②	제2기 1910년대 신문학 발아기	한일합방~3·1운동(신체시와 초기 이광수 소설시대)
③	제3기 1920년대 신문학 발전기	3·1운동~만주사변(문예사조 혼류시대·근대문학 전개기)
④	제4기 1930년대 신문학 성숙기	만주사변~8·15해방(순수문학 주류시대·현대적 성격의 문학대두)
⑤	제5기 1940년대 신문학 재출발기	8·15해방 이후(현대문학 발전기)

반면에 김윤식, 김현은 정치 상황과 사회 이념에 따른 근대의식의 성장이라는 외부조건을

기준으로 18C 영정조 시대 혹은 19C말 개항을 한국근대문학의 기점으로 보았다. 이는 서구화 과정으로서의 근대적 문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며, 문학적 가치와 사회적 변동 관계를 연결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 문학이 이식이 아닌 자생적 힘에 의해 발전되었다는 점과 근대적 언어의식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표현한 영정조 시대를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 참조).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근대문학은 영정조 시대(특히 근대의식이 성장한 1780~1880)에 생산된 작품까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1894년에 비해 훨씬 이전 사회의 작품까지 한국근대문학의 범위로 규정한 이와 같은 논의를 수용할 경우 작업량이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연현의 주장과 연구 수행상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1894년을 한국근대문학의 출발점으로, 논의의 대부분이 일치한 점을 참고하여 1945년을 한국근대문학의 종점으로 수용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한국근대문학은 1894년부터 1945년 사이에 생산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시기적 기준은 이 연구의 지지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2> 김윤식, 김현의 한국근대문학사 구분

①	근대의식의 성장: 1780년~1880년에 이르는 영정조 시대	근대적 언어 의식으로 새로운 장르가 개척되었다고 보고,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구분
②	계몽주의와 민족주의의 시대: 1880년~1919년에 이르는 개항에서 3·1운동에 이르는 시대	일본, 서양의 영향으로 계몽주의(개화파)와 민족주의(척사파) 등장, 3·1운동은 계몽주의 최후불꽃, 김옥균·홍현의 일기, 안국선의 정치소설, 이광수의 계몽소설을 중심으로 봄
③	개인과 민족의 발견: 1919년~1945년에 이르는 3·1운동 이후부터 해방까지 시대	민족주의가 점차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시기로 봄 한국어에 대한 자각이 강해져 억압받는 민족 일원으로 그것을 표현할 장르를 형성한 시기로 봄
④	민족의 재편성과 국가의 발견: 1945년~1960년에 이르는 해방 이후부터 4·19까지 시대	민족주의 세력에 의한 독립과 분단, 위기의식과 패배의식으로 가득 찬 시기지만 4·19를 통해 이상주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시대로 봄

2. 문학분야 주제가이드 사례분석

앞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구축작업의 일부 분으로 원작업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서강대학교도서관, 영국국립도서관, 하버드대학교도서관 등 4개 기관의 주제가이드를 분석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근대문학만을 대상으로 한 주제가이드는 운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문학분야 주제가이드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가.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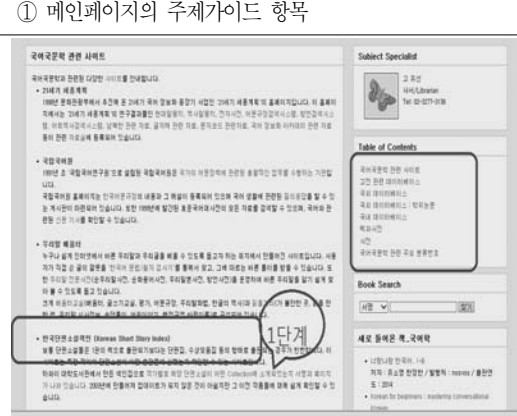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의 주제가이드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았는데, 특히 한 화면에 관련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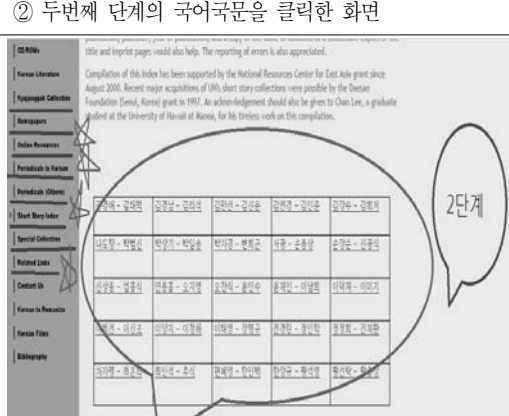
된 자료를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최소 단계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된 디스플레이 구조가 가장 큰 장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정된 단계별 계층구조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단계를 거치게 할 수 있는 주제가이드의 단점을 개선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발견된 장점은 해당 주제에 대한 심층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의 하위 메뉴에서 [한국단편소설색인]이라는 항목을 클릭할 경우 [작가별], [시기별], [종류별]로 자료들이 제시된다. 그 상태에서 [작가별]을 클릭하면 해당 작가들이 나열되며, 그중 관심 있는 자료를 클릭하면 더 깊이 있는 정보가 제공되거나 링크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신문자료, 특별자료, 필름자료 등의 특수자료까지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기준으로 배열한 점은 단편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키워드 검색엔진에 비해 주제가이드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메인페이지의 주제가이드 항목




② 두번째 단계의 국어국문을 클릭한 화면



③ 한 화면에 상위항목 모두 재현됨



④ 한국단편소설색인을 클릭한 결과로 작가별, 시기별, 작품별 등의 구조로 재현됨(장점으로 볼 수 있음)



AUTHOR	COLLECTION	PUBLISHER	YEAR
백일 오	1931 단편 한국단편문학집 17	서울 신구문화사	1972
한국단편소설연구회 편	1994 우리시대의 문예소설 1	서울 문진사	1994
유정인	1999 신문화재단소설작품집	서울 문예소21	1999
이정인	2000 신문화재단소설작품집	서울 문예소21	2000
김지희	1970년 문학작품 1966	서울 작가출판사	1967
김지희	1970년 문학작품 1967	서울 작가출판사	1968
한수산	1970년 문학작품 1969	서울 문진사	1969
이수현	1970년 문학작품 1970	서울 문진사출판사	1970
서정주	1970년 문학작품 1970	서울 문진사출판사	1971
유한용	1970년 문학작품 1971	서울 문진사출판사	1971
김부용	1970년 문학작품 1972	서울 문진사출판사	1972
김부용	1970년 문학작품 1973	서울 문진사출판사	1973
김부용	1970년 문학작품 1974	서울 문진사출판사	1974
한국소설가협회 편	1982년 문학작품 1980	서울 문진사출판사	1980
한양대학교	1982년 문학작품 1981	서울 문진사출판사	1981
김지희	1982년 문학작품 1982	서울 문진사출판사	1982
한국소설가협회 편	1982년 문학작품 1983	서울 문진사출판사	1983
이수현	1982년 문학작품 1984	서울 문진사출판사	1984
한국소설가협회 편	1982년 문학작품 1985	서울 문진사출판사	1985
한국소설가협회 편	1982년 문학작품 1986	서울 문진사출판사	1986

⑤ 작가별 항목을 클릭한 화면으로 강경애부터 아래로 모든 작가가 나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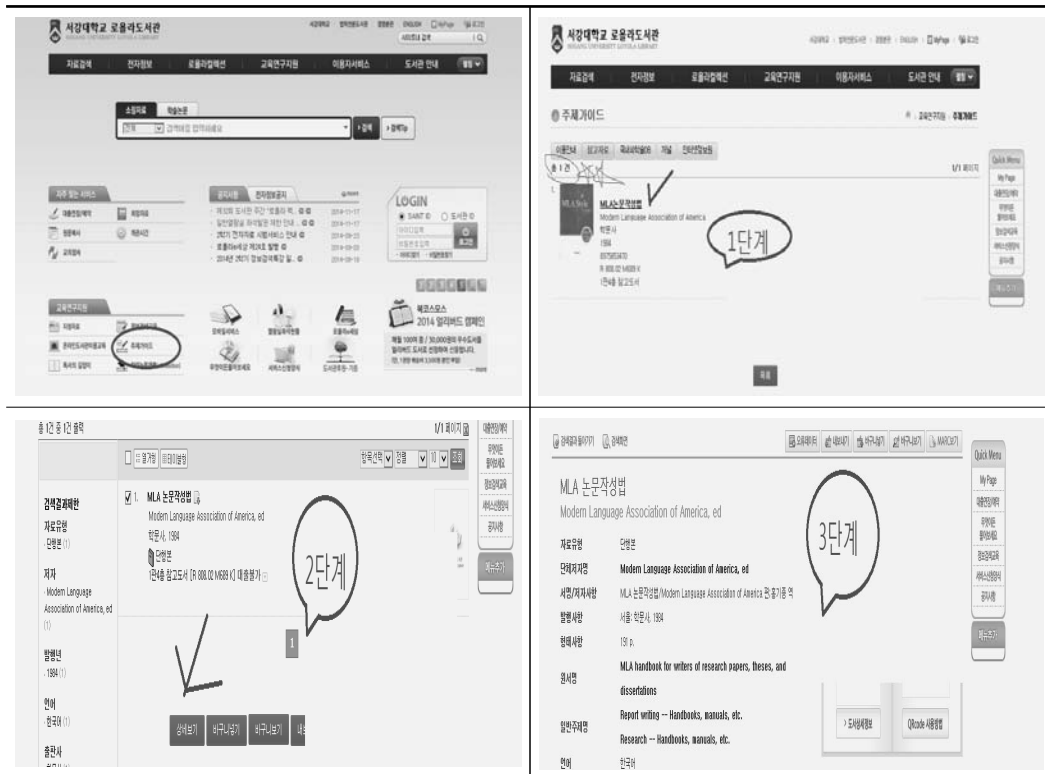
⑥ 강경애 작품 지하층이 실린 『단편집 : 한국문학전집 30』을 클릭한 결과, ①~⑥을 통해 유연히 획득할 수 있음

<그림 1>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

이와 같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국어국문을 클릭하면 ①[국어국문학 관련 사이트], ②[고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③[국외 데이터베이스], ④[국내 데이터베이스], ⑤[국내 학술지 원문 제공 데이터베이스], ⑥[백과사전], ⑦[사전], ⑧[국어국문학 관련 주요 분류번호] 등 8개의 상위 항목이 순차적으로 나열된다. 그 상위 항목 아래에는 다시 4~10개의 하위 항목이 나열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정된 계층구조를 단계별로 따라가야 하는 번거롭고 경직된 구조를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부분이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만 제공되는 단조로움을 벗어나 동영상이나 웹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의 정보 획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글씨체, 색상 등에 대한 디자인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서강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

서강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는 국내 도서관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제가이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메인화면에서 주제가이드라는 서비스를 발견하



<그림 2> 서강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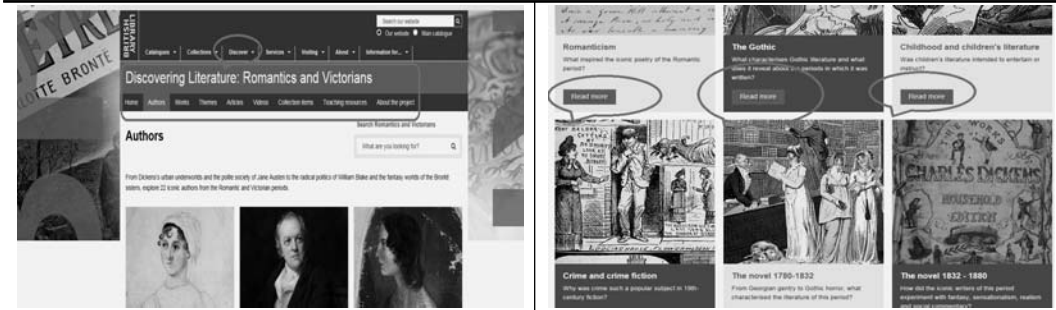
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은 국내외 도서관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제공되는 콘텐츠 양이 제한적이다. 이 역시 국내 도서관의 공통적인 특성 중의 하나로, 예를 들면 주제가이드를 클릭하면 1단계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단계의 세부주제를 확인하고 3단계의 시, 희곡, 소설, 수필 등의 장르별 확인과 함께 자관의 소장위치와 청구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복잡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이 역시 주제가이드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LA논문작성법』이라는 단행본을 클릭하면 [서지사항] 등이 나타나는데, 2단계로 [상세보기]를 클릭해야 <그림 2>와 같이 해당 도서의 3단계 서지사항이 나타난다. 따라서 원클릭으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영국국립도서관 주제가이드 분석

주제가이드 명칭은 British Library Discovering Literature로 이는 일반적인 문학 주제가이드가 아니라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주제가이드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정치,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오리지널 필사본이나 희귀도서 및 삽화를 비롯하여, 신문, 사진, 광고, 지도, 서간 등의 원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주제가이드는 빅토리아 시대와 낭만주의시대를 대표하는 원저자의 육필원고, 초고 노트, 초판본, 희귀삽화 등 영국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본을 소개한 것으로, 이와 같은 가치 있는 자료의 제공은 British Library Discovering Literature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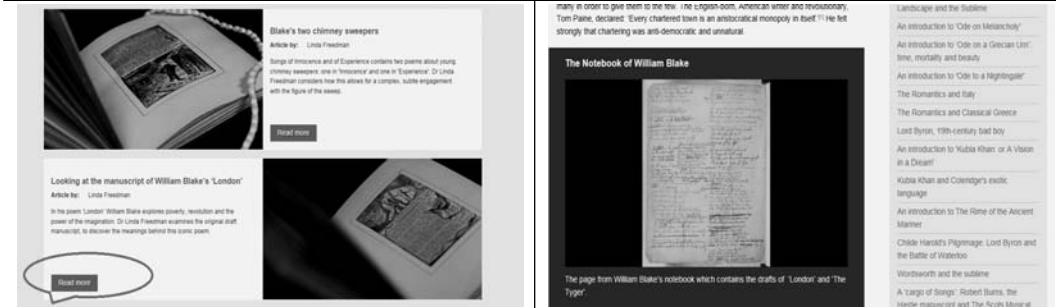
두 번째 장점은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실제 화면에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나열되는 작품 중 『A Christmas Carol』이라는 단행본을 클릭하면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자, 출판년, 장르, 시대 등의 서지사항과 함께 해당 도서의 이미지가 구현된다. 필요시 이 단계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여 전문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검색단계는 복잡한 반면 원문은 제공되지 않는 주제가이드의 단점을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육필원고 및 초판원고와 같은 귀중본을 제공한 점이다. <그림 3>의 ③과 ④에 예시된 것처럼 ‘낭만주의’에 대한 더 읽기를 클릭하면 William Blake의 육필원고 전문을 볼 수 있다. William Blake는 다른 주제가이드에서도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될 만큼 문학 주제가이드에서 종종 등장하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William Blake의 육필원고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은 British Library Discovering Literature 외에는 흔치 않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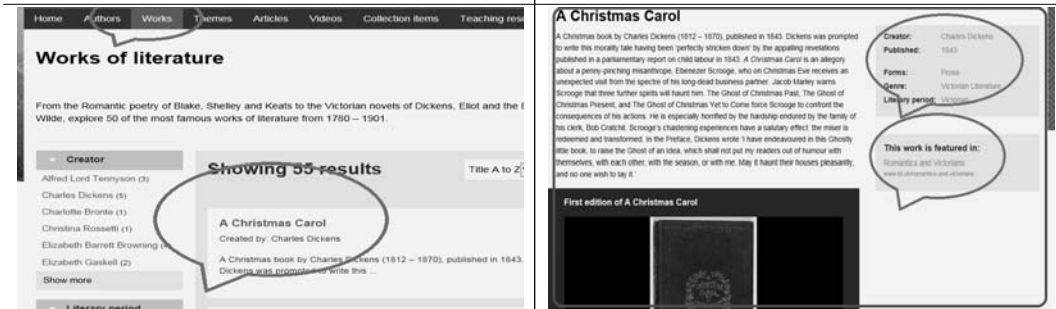
① 낭만주의 시대와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발견을 클릭하면 먼저 해당 작가들이 나타남

② Themes를 클릭한 화면으로 모든 자료는 이미지로 재현되며, 더 읽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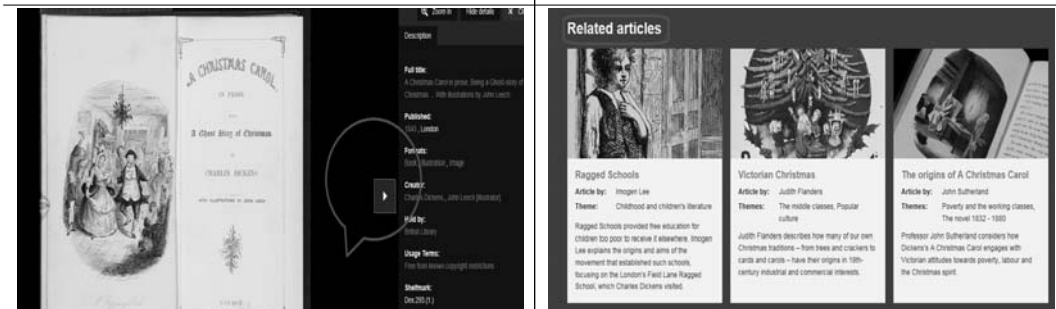
③ Themes 중 Romanticism을 클릭한 결과임

④ 낭만주의 저작 중 William Blake의 육필원고임



⑤ Works를 클릭한 결과임(55건으로 많지는 않음)

⑥ 『크리스마스 캐롤』의 서지사항과 설명



⑦ 『크리스마스 캐롤』을 클릭하면 전문을 볼 수 있음

⑧ 『크리스마스 캐롤』의 관련 논문

<그림 3> 영국국립도서관 주제가이드

네 번째 장점은 화면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시각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역동적 화면 구성은 주제가이드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텍스트만 제공되는 단조로움을 벗어나 동영상 및 웹페이지와 같이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며, 각 주제 분야의 인기 자원과 연관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은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장점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업그레이드 정보가 자세하게 제공된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자료 발굴을 통해 데이터를 갱신함으로써 콘텐츠 양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내용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갱신내용, 갱신항목, 갱신날짜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은 주제가이드에 대한 신뢰성과 권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이상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의 가치가 높고, 제공되는 내용이 풍부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라. 하버드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 분석

하버드대학교도서관은 Literature Research Guide라는 명칭으로 주제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대체적으로 자관에서 구독하는 주제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자관목록, 자관에서 소장중인 자료 중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보원 등으로 링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림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학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적 자료부터 특수한 부분의 자료까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관 소장 자료는 물론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집단 사이트, 주제관련 핵심정보 및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주제와 관련한 학회 및 연구소 정보까지 링크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 특성은 특정한 주제 분야의 필수적인 정보자원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을 정보 과잉으로부터 보호하고 연구시작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주제가이드의 장점을 실제로 보여주는 점이다. 예를 들면 [Selected Sites]의 경우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엄선된 사이트라는 설명과 함께 일반 이용자보다는 전문가에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원들이 주제전문가에 의해 평가, 분류 및 기술되기 때문에 검색엔진에 비해 고품질의 정보자원이 제공된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다양한 사이트로의 링크와 관련하여 데드링크 비율이 다소 높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특정주제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안내된 사이트로 이동시 해당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거나 깨진 상태일 경우 주제가이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완전하거나 철저한 주제가이드라기보다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교육용 도구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지역, 시대, 문학사조,

연구분야, 학습가이드 등의 학문적 관심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입수되는 원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대학도서관 주제가이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하버드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

3. 사례분석 시사점

사례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의 수록범위가 광범위한 점이다. 이는 주제가이드의 장점으로 특히 해외 사례에서 발견되었는데, 해당 기관들은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세계각지에 분포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해당 URL로의 링크를 통해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이용자의 요구 수준에 따라 기초자료에서 전문자료까지, 포괄적인 자료에서 구체적인 자료로의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에 이 점은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과정에서 수록 범위의 완전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동일한 저작들에 대해 배열 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점이다. 주제가이드가 수집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경로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용자가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다양하게 배열된 체계를 따라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우연히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제가이드의 장점이기도 하다. 영국국립도서관, 하버드대학교도서관 역시 이와 같은 주제가이드의 장점을 활용해 시기별, 사조별, 지역별로 자료를 배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정보탐색의 편리성 등과 관련하여 이런 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주제가이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원문 제공의 미비점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나타난 점이다. 영국국립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원문제공 보다는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 기관으로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접근을 유도하지만 해당사이트에서도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원문 접근이 복잡할 경우 이용자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주제가이드 개발 시 참고할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주제가이드의 단점으로 거론되던 검색단계의 복잡함은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입수한 후 이용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화면에 많은 정보를 나열하고 있었다. 이 점은 이 연구에서도 반영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주제가이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디자인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콘텐츠와 배열 체계에서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영국국립도서관의 역동적 디자인에 비해 이용자의 주목을 끌기에는 부족한 점이다. 주제가이드의 서비스 대상인 이용자는 대부분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제가이드의 디자인도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시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1.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과정

가. 우선구축 대상자 선정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한 주제가이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근대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양에 따라 주제가이드의 규모와 구축작업의 복잡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제가이드 개발은 현실적으로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차선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근대문학자료 특별전(2014년 10월 31일)에 전시된 저자 97명을 중심으로 최종 117명을 우선구축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근대문학자료 특별전에 전시된 97명은 기획 단계에서 이미 1894년부터 1945년 사이에 활동한 저자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점과 전시작품 자체가 당시 생산품으로서의 증거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구의 주제가이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구축 대상자로 수용하였다.

근대문학 문인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의 권위 있는 자료들조차 작가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각각의 연구자에 따라 근대문학 작가로 언급하는 인물이 다르며, 전체적인 숫자 역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이선영의 『한국문학의 사회학 1993』에는 1906년부터 해방까지 대략 103명의 문인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백철의 『신문학사조사 1980』에서는 396명이 근대문학 작가로 거론되고 있다(조동길 2014, 258). 이처럼 근대문학 작가에 대해서는 관련학계에서조차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당시의 활동 저자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우선구축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1894년부터 1945년까지 활동한 문인이며, 그중에서도 대표성이 인정되는 저자라는 점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학계의 권위 있는 자료를 참조하였다. 임화의 『신문학사 1993』, 백철의 『신문학사조사 1980』, 김윤식의 『한국문학사 1984』,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 1985』,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5 2005』, 권영민의 『한국현대문인대사전 1991』 등을 참조하여 20여명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이 연구는 일련번호 1번 강경애부터 117번 황순원까지 최종 117명의 저자를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우선구축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자료유형 구분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서 구축대상으로 규정한 자료유형은 일반도서, 원저자 단편, 원저

자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술기사, 사전 및 백과사전, 온라인사전, 정부간행물, 웹정보,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사이트, 웹DB, 오픈 액세스, 학위논문, 멀티미디어 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도서관 한국근대문학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한국근대문학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여러 형태의 자료가 제시되는데, 그중 717건의 단행자료 중 전기철의 「한국근대문학비평의 기능 1997」, 강진호의 「한국근대문학 작가연구 1996」, 홍신선의 「한국근대문학이론의 연구 1991」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작품은 117명의 원작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저자 단편은 당시 《창조》, 《폐허》, 《백조》와 같은 동인지나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지상에 발표된 단편 작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광수의 『무정』도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라 『매일신보』에 무정한 놈(24회, 112회), 무정한 세상(35회), 무정한 사회(53회), 무정(66회, 74회, 75회, 77회, 104회, 105회, 111회) 등으로 연재된 내용이다(이경현 2013, 196). 따라서 이와 같은 각각의 자료는 저자의 단편에 해당한다. 그러나 1920년 신문관에서 발행한 이광수의 『無情』이나 2013년 학산문학사에서 출판한 이광수의 『무정』은 저자 단행본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자료와는 다른 유형인 학술기사, 학위논문 등의 자료는 앞서 언급한 117명의 원저자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원저자 혹은 원저자의 작품을 주제로 다른 저자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즉 파생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43년 모윤숙이 쓴 「렌의 애가」는 모윤숙의 원자료이며, 1962년 김광섭이 쓴 「『렌의 애가』의 시인, 모윤숙」은 모윤숙의 파생자료인 것이다. 만약 이 작품이 1945년 이전에 생산되었다면 당연히 김광섭의 원자료에도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문학 시기로 규정한 1894년부터 1945년 사이에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섭의 원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 작가의 작품이라도 1945년 이전이나 이후냐에 따라 원자료의 범위가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자료와 파생자료의 개념은 생산자와 생산시기의 두 가지 문제가 관련된 다소 복잡한 구분이기도 하지만 이는 파생자료까지 수집해서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근대문학을 주제로 한 논평, 비판,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은 근대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타 사전은 권영민의 『한국현대문인대사전 1991』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자료는 당시의 뉴스 자료나 이후에 생산된 영상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김동인의 『감자』를 주제로 만든 김승욱 감독의 영화 1968년 <감자>와 이를 리메이크한 변장호 감독의 영화 1987년의 <감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자료유형은 다소의 혼재된 기준에 의해 구분된 경향이 있지만, 명확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편의성에 기반

하여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자료유형

유형코드	자료유형	자료형태
A1	일반도서	과생자료
A2	원저자 단편	원자료
A3	원저자 단행본	원자료
B3	연속간행물	원자료, 과생자료
B4	학술기사	과생자료
C1	사진 및 백과사전	과생자료
C2	온라인사진	과생자료
F4	정부간행물	원자료, 과생자료
H1	웹정보	과생자료
H4	관련기관, 단체	원자료, 과생자료
H5	관련사이트	과생자료
I1	웹DB	과생자료
I2	오픈 액세스	과생자료
J1	학위논문	과생자료
K1	멀티미디어 자료	원자료, 과생자료

〈표 4〉 모운숙의 원작에 대한 파생자료 현황

발표일	서지사항
1933. 1.	홍 구, 「1933년의 여류 작가의 군상」, 《삼천리》
1933. 2. 8.	안석주, 「라인 강변(江畔)의 유두희, 월암(月岩) 모운숙 씨」, 《조선일보》
1933. 3	이광수, 「조선의 문학」, 《삼천리》
1933. 10. 20.	김상용, 「영운 시집 독후감」, 《동아일보》
1933. 10. 29~31.	김기림, 「모운숙 씨 리리시즘, 시집 『빛나는 지역』을 읽고」, 조선일보
1933. 12.	양주동, 「1933년도 시단 연평」, 《신동아》
1933. 12. 7~13.	김기림, 「1933년 시단의 회고」, 《조선일보》
1934. 2.	김기림, 「여류 문인 편감 총평」, 《신가정》
1934. 2.	박용철, 「여류시 총평」, 《신가정》
1934. 3.	박귀송, 「전환기에 서 있는 모운숙」, 《시인문학》 3권 2호
1934. 5.	이선희, 「렌의 얘기를 읽고」, 《조광》
1934. 9. 15~19.	최재서, 「시와 도덕과 생활」, 《조선일보》
1938. 1.	이현구, 「시인 모운숙론」, 《조선일보》
1948.	메 론, 「연설집: 모운숙 편」, 문화당
1949. 3.	문경석, 「모운숙론」, 《신예원》
1958. 12.	신선규, 「미소의 근원, 모운숙론」, 《자유문학》
1962.	김광섭, 「렌의 얘가」의 시인, 모운숙, 《여원》 8권 10호
1967. 5.	정태용, 「모운숙론」, 《현대문학》
1967. 7.	정귀영, 「모운숙론」, 《시문학》
1969. 5.	전숙희, 「모운숙 시인과 나와의 인연에서」, 《월간문학》
1970~2012.	약 70여편 생략
2013.	신선영, 「모운숙 시에 나타난 꽃의 의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다. 입력항목 개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는 데이터 입력의 구체성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대상에 대한 데이터를 자세하게 입력할수록 검색결과 상세한 정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표 5>와 같이 데이터 입력 항목을 제한하였다. 즉 각각의 자료유형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원저자 단편의 경우 필수 입력 항목으로 유형코드, 국가구분코드, 제목, 자료유형, 저자, 발표지, 발행년, 발행기관, 자료소개 등이다. 다음으로 이 자료의 원문이 구축되어 있을 경우 링크에 필요한 URL과 후에 여러 개의 단편이 모여 발표된 단행본명, 문학종류, 발행일 등은 선택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반면에 원저자의 단행본일 경우 유형코드, 국가구분코드, 서명, 장르, 저자, 출판사, 출판년, 자료소개를 필수항목으로 규정하고 URL, 부서명, 주제명, 일반주기, 총서사항, 형태사항, 목차, ISBN, 출판지를 선택항목으로

<표 5> 자료유형별 데이터 항목

자료유형	필드	세부 필드
원저자단편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제목, 자료유형, 저자, 발표지, 발행년, 발행기관, 소개
	선택	URL, 수록단행본, 문학종류, 수록면, 발행일
단행본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서명, 장르구분, 저자, 출판사, 출판년, 소개
	선택	URL, 부서명, 주제어, 일반주기, 총서사항, 형태사항, 목차, ISBN, 출판지
학술저널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학술지명, 저자, 발행기관(학회명), 소개
	선택	URL, ISSN, 학회영문명, 학회약어, 간기, 통권
학술논문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제목, 저자,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기관, 수록면, 발행년, 소개
	선택	영문자료명, URL, 주제어, 본문언어, 원문유무, 목차, 초록
학위논문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논문명, 저자, 학위종류, 수여기관, 발행년, 소개
	선택	영문자료명, URL, 주제어, 페이지, 원문유무, 목차, 초록
참고자료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자료명, 저자, 유형, 발행년, 출판사, 페이지, 소개
	선택	URL, ISSN 혹은 발간등록번호
연구보고서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자료명, 저자, 발행년, 발행기관, 소개
	선택	URL, ISSN 혹은 발간등록번호
학술회의자료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주제, 발표자, 회의명, 일시, 발행년, 주최기관, 소개
	선택	URL, 장소
유관기관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기관명, 대표자, URL, 소개
	선택	사이트유형, 발행기관지
관련학회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학회명, 대표자, URL, 소개
	선택	사이트유형, 발행학회지
웹정보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사이트명, 사이트유형, URL, 소개
	선택	운영기관
웹 DB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DB명, URL, 소개
	선택	-
오픈 액세스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사이트명, 사이트유형, URL, 소개
	선택	운영기관, 참고자료
극자료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자료명, 자료유형, 원작, 상영연도, 감독, 소개
	선택	URL, 출연자, 장소, 각본

규정하였다. 이상의 항목은 특정 작품에 대한 정보 대부분을 표현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연구에서 한국근대문학의 전체적 맥락에 기반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 식민성과 탈식민성이 공존한 상태에서 형성된 한국근대문학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입력 항목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조》, 《폐허》, 《백조》 등 중요 잡지와 동인지의 변화, 문학적 사건과 역사적 사건, 당시 대표 작가들의 육필원고, 서간, 일기, 노트, 집필 자료, 유품 등과의 연결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서사화를 표현한다고 가정하면 이와 같은 데이터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는 제한된 여건에서 수행된 시범연구로 정밀한 작업은 후속연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배열체계 규정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근대문학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의 군집효과를 통해 주제가이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차원의 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여러 관점으로 조직된 구조로의 체계화를 통해 고정된 단계별 배열을 생략하고 필요한 항목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작가별, 장르별, 시기별 배열규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러한 배열체계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의 [한국단편소설색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버드대학도서관과 영국국립도서관의 [작가별], [사조별], [시기별] 배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국국립도서관은 시대범위를 구체적인 특성으로 구분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빅토리아 시대, 낭만주의 작품에 대한 원저자의 육필원고, 초고노트, 초판본, 희귀삽화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 데이터를 작가, 장르, 시기 등으로 배열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경로를 다양화 한 점과 브라우저를 통해 사전에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우연히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주제가이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① 저자별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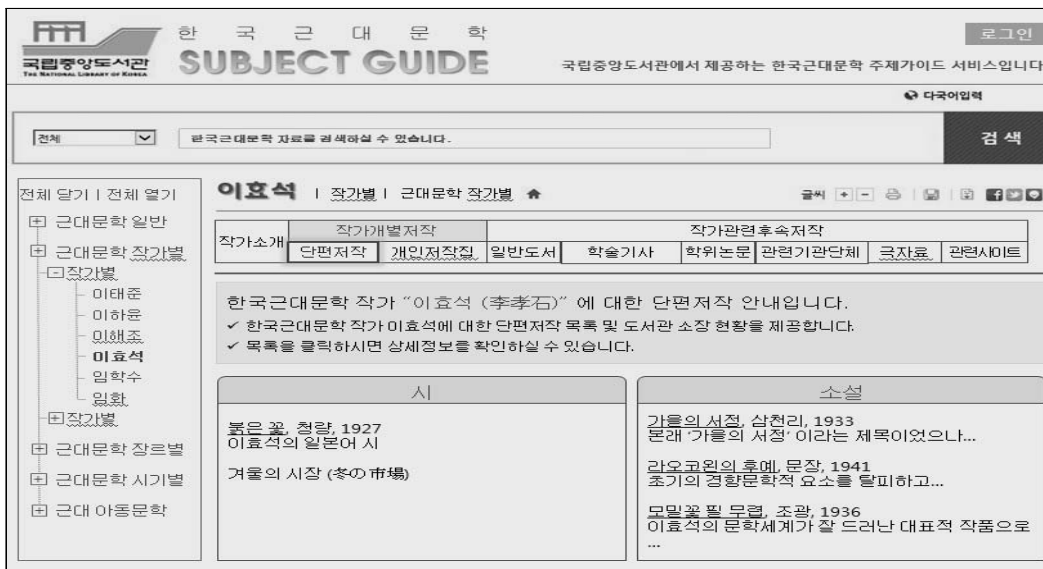
각각의 저자에 대한 작품이 모두 검색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화 한 저자별 배열은 문학 분야 주제가이드에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근대문학에서 저자별 배열은 더욱더 의미 있는 배열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저자별 배열만으로 당시의 저자가 갖고 있는 사상적 경향, 역사와 현실을 보는 태도 등을 직접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교육을 통해 학습한 배경지식의 동원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저자별 배열은 정제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효석으로 검색할 경우 <그림 5>와 같이 단행자료(231건), 연속

자료(397건)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저자를 이효석으로 조건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명의 다른 작가의 작품이 검색되기 때문에 원래 의도한 이효석의 작품만을 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자별 배열로 구축할 경우 <그림 6>과 같이 이효석의 단편, 단행본 등의 원자료는 물론 이효석에 대한 일반저서, 학술논문, 학위논문 등의 과생자료까지 접근할 수 있다.



<그림 5> 국립중앙도서관 메인 홈페이지 검색결과(이효석)



<그림 6>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저자별 배열 결과(예상 결과)

② 장르별 배열

장르별 배열은 문학분야 주제가이드에서 나타나는 기본특성으로 이 연구에서는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아동문학, 문학일반, 번역번안, 기타 등 9개의 장르로 배열하였다(〈표 6〉 참조). 다소 모호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장르 구분은 한국근대문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문학과 번역번안을 하나의 장르로 구분한 점에 대해서는 논리성과 체계성의 불분명함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문학과 번역번안은 한국 근대문학과 동시대에 태동하여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것으로 이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한국근대문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아동문학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사회에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고 아동문학이 생산된 것은 『소년중앙』, 『어린이』, 『아이들보이』 등에 동요, 동시 등이 발표된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권혁준 2012, 5). 즉 이때 들어 아동독자, 매체, 작가 등이 삼위일체를 이룸으로써 아동문학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원종찬 2008, 95). 또한 1895년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는 아동문학의 고유한 미적 규범과 양식적 가치를 구성한 시기로, 이때 들어 제국주의의 팽창과 긴밀하게 관련된 아동문학의 장르가 발생한 것이다(오현숙 2016, 3).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아동문학은 한국근대문학과 함께 설명되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번역번안 역시 당시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906년 신소설이 등장한 이래 가장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는 『매일신보』에서 번안소설을 실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다(이경현 2013, 184). 당시의 번안소설은 새로운 학문과 현실을 문학 속으로 끌어와 새로운 윤리적 서사제안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광수의 『무정』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서사구조, 배경, 인물 설정 등에서 서구소설과 동일한 모티프를 차용한 『무정』은 귀족 자제의 타락, 자연재해, 동맹휴학 등 서양의 번역소설이 보여주었던 무정을 조선의 물정과 풍속에 맞추어 풀어낸 것으로 번안소설의 영향에 의해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이경현 2013, 79).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의 하나인 『무정』마저 번안소설의 영향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한국근대문학과 번안소설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아동문학과 더불어 번역번안 역시 한국근대문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르로 구분하여 배열하였다.

〈표 6〉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자료 장르 코드

장르코드	장르명
GR 01	시
GR 02	소설
GR 03	수필
GR 04	희곡
GR 05	평론
GR 06	아동문학
GR 07	문학일반
GR 08	번역번안
GR 99	기타

③ 시기별 배열

문학이란 당대의 현실과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문인들 또한 동시대의 사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특히 시대적 특징이 하나의 문학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시기별 배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근대문학의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문학외적 사회변화와 문학내적 작품의 변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작품의 자체적 요인과 외적 여건인 당시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근대문학의 시대구분은 10년 단위의 방식이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다(조동길 2014, 249). 기계적 구획으로 보이는 이와 같이 10년 단위 구분이 다소 편의적 발상일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근대문학의 시기구분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단위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동안 이 시기에만 시행된 여러 시책,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환경과 분위기, 문단의 성립과 발전, 이 시기에 산출된 작품들이 갖는 특정한 성향 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1930년대는 설명력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저자나 작품의 특성은 시대의 특성에 편입되어 그 시대의 고유한 문예상으로 재현되어 나타난다. 작품에 드러나는 작중인물의 행위와 의식, 그리고 묘사된 부분적 현실뿐만이 아니라 작가 자신마저 시대적 상황에 예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즉 저자나 개별 작품은 모두 시대라는 단위에 묶이게 되는데 말과 글을 박탈하고 일상생활에서부터 예술창작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폭압하는 1930년대는 그러한 예를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동길 2014, 251-257).

이상을 통해 문학에서 시대구분은 단지 편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문학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며, 동시에 한 시기 문학 이념의 본질을 추출해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문학은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기구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시기별 배열을 〈표 7〉과 같이 10년 단위

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즉 앞서 살펴본 논의와 2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1기(신문학 태동기) 1894~1909, 제2기(신문학 발아기) 1910~1919, 제3기(신문학 발전기) 1920~1929, 제4기(신문학 성숙기) 1930~1939, 제5기(신문학 암흑기) 1940~1945 8.15 해방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7〉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시기 구분

명칭	연도	배경
제1기(신문학 태동기)	1894~1909	갑오개혁~일본강제합병
제2기(신문학 발아기)	1910~1919	일본강제합병 이후~3.1운동
제3기(신문학 발전기)	1920~1929	3.1운동 이후~만주사변
제4기(신문학 성숙기)	1930~1939	만주사변 전후~태평양전쟁
제5기(신문학 암흑기)	1940~1945. 8.15 해방까지	태평양전쟁 이후~8.15 해방

2.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내용

가. 구축결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1894~1945년에 활동하였던 작가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중인 자료의 저자를 중심으로 최종 117명에 대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17명의 작가가 생산한 모든 작품에 대해 데이터를 구축한 것은 아니다. 동일 작가의 작품일지라도 1945년 이후의 작품은 이 연구에서 규정한 한국근대문학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1945년 이후에 생산한 작품이라도 구축 대상자인 117명의 작가나 작품을 주제로 하여 다른 저자에 의해 재생산된 것은 파생자료로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작품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117명에 대한 인물정보원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즉 작가명, 본명, 호, 출신 지역, 출생년, 사망년, 작가 소개, 작가 이미지, 주요 작품, 주요 작품 연도, 주요 작품 소개, 개인 연표 및 소개 등 13개의 항목을 구축하였다.

작가별 구축 현황은 <표 8>과 같이 총 23,731건으로 작가 1인당 평균 약 202건이다. 그러나 원자료 자체뿐만 아니라 파생자료에 의한 데이터의 차이로 인해 개인차가 크게 발생했다. 예를 들면 874건으로 나타난 염상섭을 비롯하여 김동인(606), 김소월(536), 백석(559), 서정주(525), 이광수(625), 이태준(500), 임화(511), 정지용(571), 채만식(627) 등은 500건이 넘는 반면 17건에 불과한 유진오(俞鎭五: 1922~1950)를 비롯하여 김경린, 김용준, 이양하, 조중환, 지하련 등은 50건 미만으로 구축되었다. 이는 해당 작가의 원자료 양에서 결정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등의 파생자료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표 8〉 작가별 구축 건수 현황

번호	작가명	구축건수	번호	작가명	구축건수	번호	작가명	구축건수
1	강경애	238	41	박태원	445	81	이해조	118
2	강소천	122	42	박화성	103	82	이효석	394
3	계용목	103	43	방인근	169	83	임학수	130
4	권 환	97	44	백 석	559	84	임 화	511
5	김경린	29	45	백신애	91	85	장지연	72
6	김광균	235	46	백 철	318	86	장혁주	68
7	김광섭	194	47	변영로	95	87	정미석	162
8	김기림	468	48	서정주	525	88	정지용	571
9	김기진	79	49	설정식	56	89	조명희	104
10	김남천	347	50	신석정	249	90	조벽암	69
11	김달진	75	51	신석조	51	91	조연현	142
12	김동리	323	52	신채호	256	92	조용만	58
13	김동석	69	53	심 훈	135	93	조 운	118
14	김동인	606	54	안국선	59	94	조중환	40
15	김동환	164	55	안회남	227	95	조지훈	319
16	김명순	73	56	양주동	207	96	주요섭	124
17	김문집	77	57	염상섭	874	97	주요한	249
18	김상용	79	58	오장환	324	98	지하권	34
19	김소월	536	59	유길준	72	99	채만식	627
20	김 역	459	60	유진오(午)	214	100	최남선	259
21	김영랑	156	61	유진오(五)	27	101	최명익	106
22	김영수	55	62	유치진	225	102	최서해	270
23	김용준	33	63	유치환	217	103	최재서	219
24	김유정	417	64	윤곤강	159	104	최정희	152
25	김일엽	51	65	윤동주	458	105	최찬식	50
26	김진섭	95	66	윤백남	72	106	한설야	263
27	나도향	195	67	윤석중	78	107	한용운	358
28	나혜석	159	68	이광수	625	108	한하운	51
29	노자영	139	69	이기영	365	109	함세덕	138
30	노천명	180	70	이무영	223	110	허 준	55
31	마해송	79	71	이병기	203	111	현경준	62
32	모운숙	190	72	이 상	335	112	현 덕	78
33	목일신	57	73	이상화	166	113	현진건	308
34	박남수	89	74	이양하	41	114	홍난파	50
35	박두진	185	75	이용악	205	115	홍명희	95
36	박목월	293	76	이육사	219	116	황석우	78
37	박세영	89	77	이은상	213	117	황순원	371
38	박용철	120	78	이인직	143			
39	박은식	149	79	이태준	500			
40	박종화	187	80	이하운	64			
	작가 총계				23,731			
	문학일반				674			
	총계				24,405			

■유진오(俞鎮午): 1906년~1987년
 ■유진오(俞鎮五): 1922년~1950년

이상 작가별 자료와 더불어 문학일반 자료 674건을 입력하여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총 24,405건의 한국근대문학 관련 자료를 구축하였다. 실제 데이터 입력결과의 예를 보면 <그림 7>과 같다.

유형코드	자료명	저자	발행기관	발행년	장르	대상저자코드	후속저작대상연도	ISBN/ISSN	자료소	url	권호정보	회의명	장소	주최	DB소	국가구분	첨부파일	사이	국내	저작	학회지명		
92	J1	말재 말기 이효석 소	조성경	영남대학교대학원	2010	GR7	AU76			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gwkey=120													
93	J1	한국 현대 서정소설	최은영	고려대학교대학원	2011	GR7	AU76			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gwkey=131													
94	K1	매밀꽃 필 무렵	안재홍	STUDIO-MWP	2012	GR7	AU76			원작 : 이효석 '매밀꽃 필 무렵'													
95	K1	매밀꽃 필 무렵	이성구	세기상사	1967	GR7	AU76			원작 : 이효석 '매밀꽃 필 무렵'													
96	K1	화분	하길종	대양영화	1972	GR7	AU76			원작 : 이효석 '화분'													
97	L1	붉은 꽃	AU76	경성제국대학	1927	GR1				이효석 일본어 시											정량		
98	L1	가을과 산양	AU76		1938	GR2																아담	
99	L1	가을의 서정	AU76		1933	GR2				1933년 12월 <삼천리>에 수록될 때는 '가을의 서정'이라는 제목이었으나 1941년 박문서관에												삼천리	
100	L1	개살구	AU76		1937	GR2				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jangseo/detailview_jangseo.jsp?con												조광	
101	L1	거리의 목가	AU76		1937	GR2				현재 당시 지면에 '중편소설(中篇小説)'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애정 획득을 위한 인물 간의 갈													여성

<그림 7> 이효석의 입력결과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94년부터 1945년 활동 저자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저자 117명을 우선구축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117명의 우선구축 대상자의 원자료 중 1894년부터 1945년까지 생산된 자료를 유형별로 입력하였다. 셋째, 1894년부터 1945년까지 생산된 117명 원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된 파생자료를 유형별로 입력하였다. 그리고 117명의 저자에 대한 저자정보를 입력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총 23,731건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작가 1인당 평균 약 202건의 자료를 입력하였다. 이와 같은 주제가이드는 기존의 주제가이드와 몇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주제가이드로서의 특성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 한국근대문학이라는 주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원자료와 파생자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함으로써 자료의 연관자료의 균집효과를 최대화하였다. 다음으로 URL로의 연결을 통해 원문을 제공하지 않은 기존 주제가이드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이상의 특징은 이 연구에서 구축한 주제가이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 자료에 대한 주제가이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실제로 117명의 한국근대문학 저자에 대한 문학자료와 저자정보 그리고 파생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이는 당시 활동한 문인이 몇 명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정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검색 환경으로는 문학자료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이용자의 앞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가장 책임 있는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조차 한국근대문학은 당시의 현실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당시의 시간, 공간, 사건, 작가에 이르는 총체적인 자료를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근대문학의 형성조건, 문학분야 주제가이드에 대한 사례분석, 전 단계에서 수행된 한국근대문학과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주제가이드 운영과 관련된 이용자 요구조사 등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근대문학 작가 117명에 대한 인물정보와 총 23,731건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는 작가 1인당 평균 약 202건에 해당하며, 이와 더불어 문학일반 자료 674건을 추가하여 총 24,405건의 자료를 입력하였다.

이상과 같이 1894년부터 1945년까지 생산된 원자료와 이를 대상으로 다른 작가에 의해 생산된 파생자료까지 구축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당시 활동한 문인이 몇 명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정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척박한 환경에서 시범적으로 개발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용자는 물론 1894년에서 1945년이라는 시대상의 특수한 조건이 녹아있는 한국근대문학의 특수성에 기반한 자료를 원하는 전문가 집단의 요구까지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의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여러 자료를 통해 한국근대문학 저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소한 117명은 넘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대문학 작가의 추가 발굴 및 데이터 구축작업이 필요하며, 117명의 작가에 대한 데이터 보완작업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선영의 『20세기 한국문학에 대한 전문가의 반응 - 「한국문학논저 유형별 총목록」 제1-7권에 의거하여 2001』과 한승옥의 『이광수 문학사전 2002』 등에 의하면 2001년까지 발표된 이광수 관련 논문 수는 780여 편이다. 그 후 약 15년이 지난 현실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작품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구축한 이광수의 작품은 약 625 편이다. 따라서 117명 이외의 나머지 작가 발굴 및 구축작업은 물론 117명에 대한 보완작업도 반드시 지속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근대문학은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형태나 존재양상이 다양하다. 근대문학에서 중요한 자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문

학기에 발행된 신문은 주요 일간지 외의 나머지 신문은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잡지 역시 김근수의 『한국잡지 개관 및 호별 목차집 1988』에 의하면 230여종에 이르지만 쉽게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구축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연설문, 기행문, 일기, 서간, 육필원고 등의 희귀자료에 대한 구축 작업도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귀중자료의 구축을 통해 기존 검색시스템에서는 입수할 수 없던 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요구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제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근대문학의 개념을 1945년 이전으로 규정하다 보니 근대문학 구축 대상 작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작가의 1945년 이후 작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1962년에 김광섭이 쓴 『「렌의 애가」의 시인, 모운숙』이라는 작품은 모운숙의 파생자료에는 포함되지만 김광섭의 작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근대문학의 해당 시기를 규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작가 개인의 작품과 관련해서는 탄력성을 적용하여 차후 후속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권영민. 1991. 『한국현대문인대사전』. 성남: 아세아문화사.
- 권혁준. 2012. 『아이들보이』의 아동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2: 5-60.
- 김근수. 1992. 『한국잡지 연구』. 서울: 한국학연구소.
- 김명인. 2005. 한국 근대 문학개념의 형성과 - '비에의 감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2): 171-201.
- 김윤식, 김현. 1984. 『한국문학사』. 서울: 민음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립근대문학관 건립 방향과 근대문학유산의 활용방안 대토론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백 철. 1980. 『신문학사조사』. 서울: 신구문화사.
- 오창은. 2013. 국립 근대문학관 건립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립 근대문학관의 '의미구성'과 '공간구성'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56: 327-351.
- 원종찬. 2008. 한국 아동문학 형성과정 연구 - 『소년』(1908)에서 『어린이』(1923)까지. 『동북아 문화연구』, 5: 73-97.
- 이경현. 2013. 『1910년대 新文館의 문학 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이선영. 2001. 『20세기 한국문학에 대한 전문가의 반응 - 『한국문학논저 유형별 총목록』제1-7권에 의거하여』. 서울: 실천문학.
- 오현숙. 2016.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 - 동화와 아동소설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이혜우. 2009. 『한국근대문학사 기술방법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임 화. 2009. 『개설조선신문학사』. 서울: 성현사.
- 조동길. 2014. 『한국 근대문학의 지실』. 서울: 푸른사상.
- 조동일. 2005. 『한국문학통사5』. 서울: 지식산업사.
- 조연현. 1985. 『한국현대문학사』. 서울: 성문각.
- 한승옥. 2002. 『이광수 문학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홍현진 외. 2015.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6(3): 381-40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ik Cheol, 1980. *Main Currents of Thought in Korean New Literature*. Seoul: Shingubook.
- Cho, Dong-gil. 2014. *Complete knowledge of Korean Modern Library*. Seoul: Prunsasang.
- Cho, Dong-il. 2005. *History of Korean Literature5*. Seoul: Jisiksanupsa.
- Cho, Yeon-Hyun. 1985.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Seoul: Sungmungak.
- Han, Seung-Ok. 2002. *Lee, Kwang-Su's literature Dictionary*. Seoul: Prunsasang. Press of Korea University.
- Hong, Hyun-Jin et al. 2015. "A Research on User's Awareness of Subject Guide of Korean Modern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381-405.
- Kim, Keun Soo. 1992. *Study of Korea Magazine History*. Seoul: Center of Korea Study
- Kim, Myung-In 2005, "The History of the Concept of 'Literature' Since 1910's in Korea,"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6(2): 171-201.
- Kim, Yun-Sik and Hyun Kim. 1984.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Seoul: Mineumsa.
- Kwon, Hyug-jun. 2012. "A Study on Children's Literature historical meaning of

- 《Aideulboi》,” *Korea Children’s Literature*, 22: 5–60.
- Kwon, Young Min. 1991. *Dictionary of Korean Modern Author*. Seongnam: Aseamunwhasa.
- Lee, Hae–Woo. 2009. *A Comparative Study on Description Methods in Korean Modern Library History*. Ph. D. diss., Mokwon University, Korea.
- Lee, Kyunghyun. 2013. *Literary Planning of Shinmun'gwan(新文館) in the formation of Korean Modern Literature*. Ph. D.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 Sun Young. 2001. *Experts Responses of 20th Century Korean Library*. Seoul: Silcheonmunhak.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Grand Conference in Establishment of National Museum of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Utilization Plan of Korea Modern Literary–Heritage*.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Oh, Chang–eun. 2013. “A Study on Establishment of National Museum of Modern Korean Literature –With focus on ‘Meaning Composition’ and ‘Space Composition’ for National Museum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he Journal of Language & Literature*, 56: 327–351.
- Oh, Hyun–sook. 2016. *Formation and Genre Division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 Focused on Children’s Story and Novels*. Ph. D.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Won, Jong–Chan. 2008.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Journal of North - east Asian Cultures*, 15: 73–97.
- Yim, Hwa. 2009. *New History of Literature of Established Joseon*. Seoul: Seonghyunsa.